

개혁과 혁명

허 순 길*

지금으로부터 꼭 470년전 10월 31일 독일의 윗텐베르그 성 교회문에는 도전적인 망치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항의문서를 내어건 것이다. 그는 교회에 만연되고 있는 악패를 보고 이상 더 잠잠할 수 없었다. 그의 이 대담한 신앙적인 행동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문서의 사본은 태풍같은 속도로 은유럽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두 주간 안에 뜻있는 독일 사람들은 그 항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다. 개혁은 누구도 저지할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영적인 후예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개혁이란 말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쓰고있는 때가 있다.

오늘 개혁이라는 말이 혁명이라는 말로 종종 바뀌어 쓰여지고 있음을 본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속화를 탄식하고,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개혁이라는 말이 혁명이라는 말의 동의어(同意語)로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개혁을 말하면서 혁명을 의도하고 있다.

오늘 혁명으로 이어져온 이 나라 제5공화국의 풍토아래 살고 있는 한국 교회는 개혁의 참된 뜻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혁명이 개혁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듯하다. 개혁주의 교회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의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이 혁명적인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음을 보게 된다. 개혁을 말하면서 혁명을 기도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생활의 특성을 잃어가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

*고려신학교

화란 캠편 신학대학원 신학박사

호주 Free Reformed Church 목회

현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

교회에 변화는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변화의 방법은 혁명이 아니고, 개혁이어야 한다. 루터, 칼빈, 나스는 개혁을 하였고 혁명을 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개혁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음 7가지로 요약하여 밝히려 한다.

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복종(Absolute subjection to God's Word).

개혁이란 주관적인 일이 아니다. 개인의 불만이나 혐오가 개혁을 위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개혁을 위한 이유가 될 때 참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혹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회와 사회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개혁은 인간의 주관적 요구를 따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그 개혁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몇몇 표어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Sola Fide)” “은혜로만이 (Sola Gratia)” “말씀으로만이 (Sola Scriptura)” “하나님의 영광만을 (Sola Dei Gloria)” 등이다. 이 표어들 가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마지막의 두 표어이다.

불란서 혁명의 표어는 “하나님도, 상전도 없애버려라 (No God, no master)” “누구나 자신이 자신의 상전이 되게 하라 (Let man himself be his own master)”이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인본주의자들의 외침이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라고 주장한다. 이 말을 우리는 매우 쉽게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고, 생활 전부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만을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다(고전 10: 31). 여기,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키지 않는다. 우리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세기의 식사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평범한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어야 한다. 개혁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인다. 모든 동기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야 한다. 여기 “만 (Sola)”이란 말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성경만 (Sola scriptura)”이란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없이 개혁을 할 수 없다. 개혁이 필요한 때에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없이 개혁이란 말은 공허한 언어일 뿐이다. 16세기 개혁의 깊은 신비는, 개혁자들의 개인의 탁

월성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여 그 바른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활동하는데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자들을, 혁명론자들로부터 분명하게 구별하게 된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회나 사회속에 왜곡된 사실이 있어, 변화의 필요를 보게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을 따라 개혁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혁명론자들은 아무런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이란 언제나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러니 실상 그들에게는 표준이 없다. 이들은 어떤 왜곡된 상태를 볼 때, 단순히 한 새로운 것으로 그것을 대치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개혁자들은 언제나 절대순종을 요구하는, 절대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개혁이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행동이다.

2. 변화를 위한 성경적 방법의 추종 (Following the Scriptural Way for Change)

개혁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이다.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약시대에 여러번의 개혁이 있었다(히스기야, 요사야 왕시대 등). 이 개혁운동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생활에서 떠나게 하여, 참된 하나님 경배의 생활로 돌이키는데 있었다. 결국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와 그만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다.

개혁자들의 활동은 종종 근본적인 격한 행동으로도 나타났다. 우상을 불사르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살해하는 일까지 있었다.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뜰에서 떨었다. 이들은 추워서 떨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요 불신자인 그들의 아내를 돌려보내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문제가 될 때, 근본적이고 철저한 행동이 언제나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회개로 출발했다. 우리는 성경적인 회개의 개념을 떠나서 개혁에 대하여 바르게 말할 수 없다. 회개와 개혁은 한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개혁이란, 신자들의 근본적이고 개인적인 회개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지 않는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시 51: 10).

개혁은 안으로부터 오게 된다. 그렇다고 외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 나타나는 전 생활의 개혁이 없는 회개는 불완전하다. 개혁이란, 안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으로, 혁명과는 전연 반대이다. 혁명은 새로운 체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낸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형식이 내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새사람(거듭난

사람) 만이 새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회개를 통한 개혁의 방법은, 몇몇 성경의 예를 들어볼 수 있다. 완력을 사용하기 쉬운 군병들이 자기들의 직업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세례요한에게 나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다. 이때 그는 “강포하지 말고 받는 요를 죽한 줄로 알라”(눅3: 14)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직업을 바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세리 삭개오에게 그의 직업을 떠나라고 권고하지 않고, 그의 마음의 변화를 촉구했다. 삭개오는 그의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가 불법으로 취한 것은 그 다섯배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다른 분명한 예는 당시 노예제도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종들에게 그들의 상전을 곧 떠나도록 격려하지 않았다. 또한 주인들에게 그들의 종들을 즉시 풀어주도록 강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종과 주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함께 살기를 바랐다. 이렇게 바울은, 기존체제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혁명적인 방법으로 현재제를 전복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릇된 현재제를 계속 유지하고 지나라고도 하지 않았다(고전7). 현존하는 잘못된 체제는 변해야 한다. 노예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법이 문제이다. 변화는 안으로부터 와야한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따라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변화의 길은, 힘에 의한 혁신이 아니라, 새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말씀을 따라 새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3. 하나님께 전적의존 (Total dependance on God)

개혁은 회개에 비교가 된다. 회개는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개혁도 회개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태도로 일해야 한다. 인본주의자들은 변화를 위해서 언제나 인간의 힘에 의존했다. 이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으로 자신의 변화도 사회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19세기에 진화론(進化論)이 지배를 했다. 이 진화론은 원숭이류의 인간이, 천천히 그의 야수성을 극복하고 진화되어 어엿한 오늘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이 진화론은, 사회의 진화에 있어서도 낙관론(樂觀論)을 폈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차츰 이 땅에 이상향(Utopia)이 오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혁명 사상이 이 진화론을 대치하게 되었다. 속도시대에 사는 20세기 인간은, 이 진화의 과정은 너무 느리므로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해서 오늘의 인본주의자들은 조급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폭력과 혁명의 방법을 통해서 이상향을 앞당겨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은 변화를 위한 화해적인 방법을 의

면하고 폭력에 호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개혁이 추구하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자기 실현의 결과가 아니다. 새사람이 되는 길에는 먼저, 자기 부인(自己否認)이 있어야 한다. 개혁을 원하는 자는, 개혁이란 인간스스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개혁을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속에 거하셔야 한다. 개혁을 위해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갈2: 20).

4. 영속적인 소명 (Permanent Call)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이 세상에 사는동안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없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회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여야 한다. 회개처럼 개혁도 역사세계에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 개혁은 항상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적으로 개혁이 되지 않을때, 침체와 변모(deformation)가 시작된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nda est semper reformanda)”라는 고상한 말은 이 진리를 바로 말해주고 있다. 칼빈은 그의시대를 개혁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을 듣기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부르는 자들은, 매일을 개혁의 때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참된 개혁자들은 현실에 만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계속적인 개혁을 소명으로 알고 매일을 살아간다.

우리는 가끔, 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나 완성되었다는 생각에 안주하고 있다. 470년 전에 개혁된 교회에 속하고 개혁된 교회의 상속인들이 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개혁에 대하여 이상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게도 된다. 매일 매일이 새로운 개혁의 때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일 아직 이루어야 할 소명, 곧, 계속 개혁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개혁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까지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현대 막스주의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영속적인 개혁이란 개념과는 반대로 영속적인 혁명(permanent revolution)을 부르짖고 있다. 일찌기 정통 막스주의(변증법적 유물론)는 현존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변증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나고야 만다는 낙관론을 주장했었다. 이 변증법적 방법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인간의 의식적인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기대한대로 자동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곧 이 변증법적 역사관을 따라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반드시 무너지고

공산주의세계 낙원이 벌써 이루어져야 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 그러므로 현대 막스주의는 변화의 과정에 인간의 의식적 참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하나의 혁명은 다음의 혁명을 위한 준비이다.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적인 혁명의 소명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혁과 혁명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게 된다. 개혁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데서 일어나게 되고, 혁명은 인간의 절망과 몸부림에서 폭발하게 된다.

5. 개혁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교회는 영적인 세계요 기독교인의 생활도 전혀 영적이라고만 보는 경향이 더러 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머리로 부터 발끝까지 전인(全人)에 관계된다.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육(靈肉)을 포함하는 전인이 관계된다. 개혁에 있어서도 전인이 함축되는 것이다. 곧 신앙과 행위, 모든 것이 관계되어야 한다. 개혁주의 교회는 올바른 교리를 강조한 나머지, 올바른 생활을 등한하기 쉽다. 그릇된 교리가 그릇된 생활보다 더 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릇된 교리와 그릇된 생활은 죄로서의 동질성을 가진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충실히 나오는 교인을 만들려고만 노력할 때가 있다. 이것이 물론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신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나라의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배와 교리와 선한도의 생활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주일(主日)의 생활에만 관계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생활의 전체 곧, 주일 뿐 아니라 평일인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생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안에 만물이 통일되어 있는고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있음을 의미한다(엡1:10). 하나님과 화목된 생활은 내적인 영적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육간 모든 생활에서, 매일 당면하는 모든 생활 상황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소명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안의 구원은 전인적이요 매일의 생활을 포괄하고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 하신대로 사는 평상 생활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영적인 생활의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신령주의(Spiritualism)와 기독교 생활을 인간생활의 일부분에만 제한하는 국부주의(departmentalism)를 거절해야 한다.

회개는 전 생활의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고, 인간의 개혁 역시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의 변화를 의미한다.

6. 근본적인 변화(Radical change)

개혁은 넓이에 있어서 포괄적일 뿐 아니라 길이에 있어서도 포괄적이다. 근원까지 개혁은 침투한다. 개혁은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속에 죽은자의 뼈가 가득하나 길으로는 회개 회칠한 무덤같은 가식적인 인간생활을 정죄했다. 개혁은, 현존한 잘못된 질서 위에다 종교적인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은 혁명의 경우처럼 현존질서를 완력으로 뒤집어 엮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개혁은 표면에 미용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 이것은 모든것을 뒤집어 엮고, 쓸어버리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도 않는다. 참 개혁은 완전한 전향(轉向)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활에 있어서의 180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개혁은 악의 뿌리까지 침투하지 않는한 만족할 수 없다. 참된 개혁은 악을 뿌리까지 뽑아 버리는 것을 추구한다. 근래에 들어 악의 체제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과거에는 거의 모든 체제를 신성하게 보아왔다. 그러나 근래에와서 이 체제속에는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탈취, 인권 유린 등은 체제의 악에서 오는 것이라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막스주의자들은, "현체제를 뒤집어 엮어라. 그리고 새체제를 세우라. 그러면 이 새체제로 부터 새사람이 나올 것이다"라고 부르짖고 있다. 이들은 인간이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새체제와 환경이 새사람을 만들어 낸다고 믿을 때, 이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악의 원천은 체제나 환경보다 더 깊은데 있기 때문이다. 막스주의 자들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혁명을 통한 해결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버렸다.

혁명을 통하여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참된 해결의 길이 아니다. 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현체제를 무너뜨리고, 새체제를 만들어 낸다고한다면 그 새체제는 이전의 것보다 더욱 악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혁명은 더욱 심각한 다른 혁명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사회의 개선을 추구한다면 먼저 인간 자신의 변화가 절대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변화의 순서는 먼저 인간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한다. 인간이 변화할 때, 사회의 개선이 다르게 될 것이다.

7. 두려움 없는 전진(A fearless march)

주에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했다(계2:10). 이 말씀은 개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개혁자들은 종종 논쟁적인 인물로, 어떤때에는 반역자로까지 보여진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는 박해와 수모를 당하게 된다. 그렇지만 개혁자는 진리의 대적 앞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를 개혁해 가던

중, 세속주의자들에게 미움을 사서, 1539년 시의회의 결의를 따라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내가 그동안 인간을 섬겼다면 유감이 있으려니와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면서 개혁자로서의 전진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제네바는 그를 추방한 3년후 다시 초청함으로 그는 제네바에 돌아와 못다 한 개혁에 전진할 수 있었다.

진리를 위한 박해와 수모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인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실망하고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 해야 한다. 우리들이 그의 이름을 인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될 때 복이 있다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아5: 10, 11).

한국교회에 두려움 없는 개혁의 전진이 멈추어진 듯 보인다. 세속주의, 명예주의, 물량주의가 교회안에 자리를 잡는 듯 보인다. 교회안에 죄와 불의를 권징함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이 “침묵이 금”이라는 세속윤리에 젖어가는 듯하다. 도전보다는 적응(accomodation)이라는 세속적 생활의 철학을 쫓아가고 있는 듯하다. 교회의 현실을 다시 살피고, 개혁의 뜻을 다시 찾아야 할 때이다.

개혁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16세기에도 쉽지 않았다. 오늘 우리들에게 개혁은 쉽지 않다. 쉬운 길들이 있다. 하나의 길은 조용히 환경에 적응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의 길은 완력으로 혁명을 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 혁명의 길은, 부패와 몰락을 다시 가져오기 마련이다. 개혁의 길만이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혁명은 절망에서 나오고, 또한 절망이외에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渡來)케 하는 일이기에 이는 언제나 소망을 안겨다 주는 길이다.

개혁은 결코 부정적인 운동이 아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것을 대항하는 운동이 아니다. 개혁의 배후에 있는 강한 동기는, 이것 저것을 반대하고 싸우려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개혁자들은 두려움 없이 전진을 하는 것이다. 개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것은 구원을 위해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그가 다시 오실때, 그는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러므로 개혁은 이 은혜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감사의 표현이요 생활이다.

현재의 한국교회를 개혁하기에 대하여

박도호**

요즈음 한국 국민들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계속하여 생각하면서 사회와 정치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타락과 매수, 또한 정치적 차원에서 생기는 부정직과 족벌세력형성을 어떻게 척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의 사회와 정치적 제도가 지금보다 더 솔직하고, 더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더 공명정대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국민들 거의 대다수는 이제 한국이, 민주화 곧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주 심각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을 포함하여 국민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속에 있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는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만 이룬다면 된다고 믿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사회가 세속주의적인 영향을 더욱더 받아서 51퍼센트의 국민들이 기독교를 공적으로 반대하므로써 기독교적인 제도와 교회를 핍박한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좋은 제도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나라만을 선포하며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말씀속에서 찾았던 진리, 다시말하면 우리 시대의 문제와 제도에 적용할 성경적인 원리만을 깨닫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실용주의적인 사상이나 방법이 아니고, 그대신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하며 그 말씀안에서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6세기의 루터, 19세기의 Abraham Kuyper, 20세기의 J.G.Machen, Klaas Schilder, 그리고 한상동

**하바드대학 졸

화란 캠퍼 신학대학원 졸
현 신학대학원 교수